

# 오월의 저항, 미디어아트 언어로 다시 서다

내달 15일까지 G·MAP 5·18 특별전 '완전한 것들의 틈'

전쟁·노동·기억·애도 담은 국내외 작가 12인 작품 한자리

천장 스피커에서 쏟아지는 바람 소리에 관객의 시선이 화면으로 향한다. 영상 속 인물은 얼굴을 때리는 바람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호흡을 이어간다. 러-우 전쟁을 경험한 우크라이나 작가 올리아 페도로바는 이 작업을 통해 거대한 폭력 앞에 놓인 개인의 저항과 생존을 이야기한다. 맞은편 영상에는 해바라기밭 사이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움직임이 스친다. 평화로운 풍경 뒤에 드리운 긴장감은 전쟁을 겪는 이들의 불안과 공포를 떠올리게 한다. 억압에 굴하지 않고 맞서려는 의지는 광주 오월이 남긴 저항의 정신과도 맞닿는다.

이를 통해 역사적 사건을 현재의 사회·문화적 문맥과 연결하며 새로운 시각을 제안한다.

전시 제목인 '완전한 것들의 틈'은 견고해 보이는 사회와 역사, 문화의 체계 속에서 예술가들이 발견한 균열을 의미한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외 작가 12명이 참여해 역사적 비극과 전쟁, 사회적 갈등, 노동과 기억의 문제를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낸다.

전시는 1·2·3전시실로 이어진다.

1전시실은 거대한 몰입형 공간으로 꾸며졌다. 현재 실물이 소실된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1989)를 디지털 콘텐츠로 복원해 선보인다. 가로 7m 규모의 대작인 이 작품은 갑오농민전쟁부터 5·18민주화운동까지 한국 근현대사 120년의 흐름을 담고 있다. 디지털 고화질 복원 파일에 움직임을 더해 역사적 장면을 생생하게 구현했다.

2전시실에서는 한국 사회의 역사와 현실을 다룬 작가들의 작업이 이어진다. 이념 갈등 속 폭력의 순환, 권력의 공허함, 불안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등 동시대 한국 사회의 단면을 다양한 시선으로 조명한다.

강수지·이하영의 '독버섯'도 눈길을 끈다. 제1주 4·3, 여순10·19, 5·18민주화운동의 기억을 독



지금은 소실된 '민족해방운동사'를 활용한 몰입형 전시 공간.

버섯에 비유한 작품으로, 금서가 된 책을 먹고 자란 버섯이 음식으로 변해 배달되는 과정을 통해 저항의 메시지가 확산되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3전시실은 오월 정신을 보다 넓은 세계의 문맥과 연결하는 공간이다. 전쟁과 노동, 상실과 애도, 문화적 갈등 등 동시대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예술가의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배치됐다.

장민승의 'Voiceless-검은 나무어'는 검은 화

면 속 퍼포머가 상실과 그리움을 담은 시구를 수어로 표현하는 영상 작업이다. 침묵 속 몸짓은 오히려 더욱 강렬한 언어가 돼 반복되는 비극에 대한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

가브리엘라 골더는 극단 배우들이 시위 장면을 재현하는 모습을 롱테이크 영상으로 담아 노동과 연대의 의미를 환기한다.

사하르 호마미는 여러 언어의 '나'를 하나의 패턴으로 엮어 경계를 넘어선 이해와 공존의 세계를 상상하게 한다.



관승찬작 '무기력한 풍경' 연작(사진 위)과 강수지·이하영작 '독버섯'

김허경 G·MAP 센터장은 "미술로 표현한 역사와 사회적 부당함에 맞서는 저항정신을 느낄 수 있는 전시"라며 "광주 5월 정신이 미디어아트라는 현대적 매체를 통해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담론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밝혔다. /글·사진=최명진 기자

## 광주서 마주한 동시대 아시아의 얼굴

한국·태국 작가 6인 참여 'Paint it Real'展...6일까지 갤러리 김넷과

광주의 역사적 장소성과 태국 민주주의의 현재가 한 전시장에서 만난다.

갤러리 김넷과는 오는 6일까지 한국·태국 작가 6인이 참여하는 전시 'Paint it Real'을 개최한다.

동시대 사회의 불안과 기억, 재난과 저항의 감각을 회화로 풀어낸 전시다.

전시에는 와나 원라양, 아르진조 나단 아르진킵, 김동우, 박성완, 서주은, 안진석 작가가 참여한다. 5·18을 품은 광주를 배경으로, 오늘의 아시아가 마주한 현실을 서로 다른 시선과 화면 언어로 펼쳐냈다.

이번 전시는 오월미술제 참여 전시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국과 태국 작가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 태도를 통해 불안과 균열, 침묵과



와나 원라양작 'Docile Body'

생존, 변화의 징후 등을 화면 위에 담아낸다.

전시는 '왜 광주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광주는 국가 폭력과 시민 저항, 기억과 진실의 문제가 선명하게 남

아 있는 도시다. 전시는 5·18이 과거의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아시아 각지의 민주주의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번 전시는 태국 방콕의 플랜셋 갤러리&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와 협업으로 진행된다.

플랜셋 갤러리 디렉터이자 추알라롱콘 정치학과 교수인 팬닛 찬로차 나킵도 전시에 함께 참여했다.

최아람 갤러리 김넷과 대표는 "광주에서 현실을 그리는 것은 오늘의 현실과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다시 바라보는 일"이라며 "이번 전시가 서로 다른 장소와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들이 현실의 감각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 애도의 흔적, 몸의 기억을 깨우다

김기린 선화 '애도하는 궤(Grieving Orbis)'展...18일까지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애도를 둘러싼 감각과 기억을 새롭게 바라보는 전시가 관람객을 만난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오는 18일까지 2026 레지던시 입주작가 김기린 선화의 개인전 '애도하는 궤(Grieving Orbis)'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애도의 과정을 따라가며 여러 관계 속에서 형성된 자신의 모습을 되짚어보는 작업이다.

작가는 죽음과 비극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질문을 던지며, 애도가 반드시 참혹함이나 비통함 같은 무거운 감정으로만 이뤄지는지 되묻는다. 대신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빛과 기억, 몸에 남은 감각의 흔적을 통해 애도의 의미를 다시 살펴본다.

전시에서는 집단적 서사 속에 가려져 쉬운 개인의 애도 경험에 주목한다.

이미지와 텍스트, 사운드, 공간을 활용해 애도의 감각을 풀어내며, 타인의 비극을 무심히 소비해 온 우리의 시선을 돌아보게 한다. 또 쉽게 설명되지 못한 채 남겨진 감정과 기



'애도하는 궤'

역을 현재의 감각으로 다시 불러오는 과정을 보여준다.

작품 속 애도는 끊어지고 이어지기를 반복하며 일상 속에 남아 있는 감각으로 존재한다. 작가는 누구나 생과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인 만큼, 누구나 애도할 수 있고 또 애도받아야 할 존재라는 점에 주목한다. /최명진 기자



# 묘 이장 · 개장

가족묘 조성 / 개장 / 묘지이장 / 유골함 / 자연장

맛춤형 묘지이장 전문 ☎ 문의) 062-464-3466